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적 치료

백 상 빈* · 김 호 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새로운 임상(치료)의 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문치료와 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천에 내재한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의 뒤섞임이라는 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정리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의 본원적인 관계, 라캉정신분석에서의 이론과 임상(치료)의 관계, 자아심리학과 라캉정신분석의 관계에 대해 들뢰즈의 관점을 경유하여 고찰해 본 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라캉정신분석에서 이론과 (임상적)실천의 가능한 형태를 모색해 봄으로써, 인문(예술)학과 라캉정신분석/자아심리학의 이론/실천을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어떠한 방향성 하에서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문(예술)학이 라캉정신분석에서 차용할 임상(치료)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문(예술)학과 라캉정신분석이 그 실천영역에서 공존할 수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인문/예술체험과 라캉정신분석의 연계에 대한 노력이 되며, 반대로 임상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아심리학에서 인문(예술)학은 임상(치료)모델을 차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문/예술학의 임상적 실천의 방향은 향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1. 라캉정신분석으로의 연계 : 문학/예술체험 자체가 지닌 정신분석적 능력은 무엇인가? (문학/예술체험의 정신분석적 요소)
2. 자아심리학으로의 연계 : 문학/예술을 매개로 사용하는 자아심리학적 심리상담치료 (문학/예술치료의 자아심리학적 접근)

▶ 주제어 : 라캉, 들뢰즈, 정신분석, 자아심리학, 이론과 실천, 시 치료

I. 들어가는 말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은 프로이트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이론작업과 그가 행한 새로운 임상작업의 결합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는 이론적 연구와 임상적 실천의 두 가지 부문이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쉽게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 둘을 자의적으로 분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라캉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일 수 있다. 즉 어떤 실천은 그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작업을 요구하게 되고, 어떤 이론적 연구는 그에 대한 새로운 실천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라캉의 정신분석은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론연구의 비약적 발전을 임상적 실천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분석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지닌 인물이 한국에 소수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직 국제적인 라캉씨클에서 분석가로 인증을 받은, 즉 ‘통과’를 거친 본격적인 라캉정신분석가의 부재라는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과 연계점을 찾으려는 자생적인 임상적 실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의 요청에 의한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적인 임상적 실천들을 과연 모두 라캉 정신분석 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논쟁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한국에 이미 상당한 임상적 실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아심리학의 입장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적 기법들이 라캉의 정신분석과 혼동되거나 혼용될 가능성마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론과 실천의 본원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실천이 라캉정신분석 임상이라고 불릴 수 있고, 또한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의 임상적 실천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현재 한국의 라캉정신분석에서 가능한 이론과 실천의 현실적인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에 잠재되어 있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해보고자 한다.

II. 이론과 실천

라캉에게 있어 이론과 실천은 어떤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라캉에게 이론적인 것은 상징계적인 범주를 의미하고 실천은 실재계를 향하려는 인간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추측된다.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정신분석에 부적절하다고 간주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천이란 그것이 무엇이건 상징적인 것을 통해 실재적인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인간에 의해 의도된 행동을 가리키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지요. 그 가운데 다소간 상상적인 것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부차적인 가치밖에 없습니다(Lacan, J 1973/2008: 19).

즉 라캉에게 있어 이론과 실천은 상징계를 통해 실재계로 향하려는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을 말하며, 여기에서 상상계는 그러한 노력의 와중에서 접하게 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신분석의 성립을 위한 라캉의 두 가지 전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반드시 ‘상징계’를 거쳐야하며,

둘째로 그것은 ‘실세계’를 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신분석을 ‘상상계’를 통해서 수행하려는 경우는 비판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상계’를 통해서도 결코 ‘실세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왜 라캉이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에 극도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는지가 분명해진다. 라캉이 보기에 이들은 ‘상상계’에서의 작업을 정신분석의 주된 과정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론과 임상적 실천에 대한 이러한 라캉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라캉 정신분석이 다른 이론적 조류들과 차별성을 지니게 되는 어떤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캉의 이론 혹은 사상에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그에 대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를 흔히 ‘Lacanian’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호칭은 라캉의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천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Lacanian’과 ‘Lacanian이 아닌 사람’의 둘로 나뉘게 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그런 까닭에 라캉 정신분석에 관한 어떤 논쟁의 극점에서 우리는 흔히 “당신은 Lacanian입니까?” 혹은 “나는 과연 Lacanian인가?”하는 규정적 질문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묵시적 구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라캉정신분석이 성립되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흔히 구조주의 이론가들이라고 부르는 라캉과 동시대의 사상가들 즉 레비스트로스, 알튀세르, 푸코, 데리다, 들뢰즈 중에서 ‘Lacanian’과 같은 호칭이 명시적으로 발생한 예는 필자가 알기로는 알튀세르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칭을 발생시킨 라캉과 알튀세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사상이 자신의 모태가 되는 어떤 사상조류와의 치열한 이론/실천적 논쟁 속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캉에게 그것은 프로이트 이후에 전개된 정신분석의 이론적 실천적 조류일 것이고, 알튀세르에게 그것은 마르크스 이후에 전개된 맑시즘의 이론/실천적 조류일 것이다. 즉 라캉과 알튀세르에게는 정신분석과 맑시즘이라는 명확한 모태사상이 존재하며, 그 배후에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라는 그 사상의 창시자가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과 알튀세르가 자신들의 모태사상을 부정하지 않고 그 기반에서 자신의 고유한 사상을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상의 창시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과 존경, 그리고 동시에 그 사상의 다른 후계자들에 대한 혹독한 부정과 비판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라캉 이론의 성립이 지닌 어떤 특징이라면, 또한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역으로 자신의 사상에 어떤 한계점이 내포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라캉 사상을 라캉 자신의 이론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라캉의 언어로 이러한 상황을 재해석해보면, 라캉에게 프로이드는 대타자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프로이드의 다른 후계자들인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의 이론/실천가들은 라캉에게 있어 대타자인 프로이드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경쟁을 벌여야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라캉이 ‘상상계’에서의 작업에만 머물러있다고 자아심리학을 혹독하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원거리에서 라캉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와 자아심리학자들이 함께 처한 상황을 바라볼 경우, 예상치 못한 난처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타자로서의 프로이드의 위상이 제거되거나 부정되지 못하는 이상, 라캉 자신과 자아심리학자들 사이의 갈등과 논쟁들 자체가 다분히 상상계적인 관계에 국한되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라캉의 상징계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려면, 대타자로서의 프로이드와 그에 대한 라캉 자신과 자아심리학자들의 관계라는 구조전체를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라캉정신분석의 이론/실천에 라캉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대입시킬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르는 당혹스러운 자가당착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타자의 관점에서 라캉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천을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에 필자는 들뢰즈의 관점을 도입해보기로 하겠다. 그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바 있다.

아마도 우리는 이론과 실천 간의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때, 실천은 이론의 적용이자 그 결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반대로 실천이 이론을 고무시키며, 미래의 이론적 형태들을 창조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요. 두 경우 모두에서,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는 총체화(totalisation)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입니다. 한 편으로 하나의 이론은 항상 국지적이며 제한된 분야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론 자신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다른 영역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적용의 관계는 결코 유사성(ressemblance)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의 이론이

적절한 영역 속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에, 이론은 그것이 다른 유형의 담론들에 연계(relais)될 것을 요구하는 장애물과 벽 그리고 방해들을 만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이론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유형의 담론들을 통해서이지요.) 실천은 하나의 이론적 지점에서부터 다른 지점으로의 연계들의 총화(ensemble)이고, 이론은 하나의 실천에서 다른 실천으로의 연계들의 총화입니다. 어떤 이론도 결국 벽을 마주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으며, 이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Foucault, M, Deleuze, G 1994/2004: 188-189).

정신분석에서 이론과 임상은 상호 직접적인 연관 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즉 임상은 ‘이론의 적용이자 그 결과’이며, 반대로 임상은 ‘이론을 고무시키며, 미래의 이론적 형태들을 창조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들뢰즈의 생각에 따르면 그러한 관점은 ‘총체화’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는 정신분석을 이루는 두 축인 이론과 임상이 직접적인 상호 인과론적 발전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둘의 관계는 ‘훨씬 더 부분적이고 파편적’일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분석 이론은 ‘항상 국지적이며 제한된 분야’인 임상과 관계 맺으면서 ‘이론 자신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다른 영역’인 철학, 인류학, 문학 등의 인문과학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그리고 영화이론, 미술이론 등의 예술학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들뢰즈의 생각은 그러한 적용들을 동일한 유형의 정신분석적 담론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유사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분석을 다른 영역의 이론에 적용하려 한다면 다른 유형의 담론이 필요하게 되며, 또한 이를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라캉정신분석, 프로이트정신분석,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 분석심리학, 인지행동치료, 예술치료(영화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인문치료(독서치료, 시 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작업과 임상적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자적인 자신만의 이론/실천 영역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합적 치료형태인 예술치료와 인문치료에서는 아직 자신만의 충분한 역사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모델을 정립해나가기 위해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 인지행동치료 등 기존에 존재하던 심리치료분야에서의 이론과 임상적 기법들을 다양하게 차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기존의 독립적이었던 치료분야들이 이 새로운 복합적인 치료의 장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섞이면서 새로운 생성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과 임상에 있어 기존의 분야들에게 새로운 논쟁점을 안겨주고 있으며, 라캉정신분석에서도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고찰은 최근 영화치료, 혹은 영화를 치료에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 박시성(2008)과 백상빈(2005)이 시도한 바 있는데, 그러한 시도가 의미하는 바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에 앞서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자아심리학 역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심리치료 이론들 중 라캉의 정신분석이론과 가장 근접해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캉이 살아생전에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였던 이론적 실천적 조류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I.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

라캉은 자아심리학을 비판하며, 임상에서 그들의 분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석의 종결점을 ‘분석가와의 동일시’로 규정하고 이를 교리화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분석을 개념화하면서 분석의 종결점을 분석가와의 동일시로 규정하려는 모든 발상-당연히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지요-은 이로써 전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지요. 분석의 종결을 분석가와의 동일시로 교리화한다면, 그런 분석은 진정한 원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곧바로 드러낼 겁니다. 이러한 동일시 너머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Lacan. J 1973/2008: 244). 이러한 라캉의 입장에 대해 부르스 핑크는 라캉의 『에크리』를 해석한 “『치료의 방향』에 나타난 라캉의 기법”에서 상상계적 전이와 상징계적 전이를 구분하며 자아심리학과 라캉정신분석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분석수행자가 우리와 함께 전이를 벗어나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자 시도하는 것(이것은 오늘날 ‘정신역동psycho-dynamic’치료의 다양한 방식에서 중심에 배치된다)은 분석수행자로 하여금 ‘자기-관찰’을 하게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환자의 행동과 정동에 대해 논평하고 비판하게 만드

는 관찰적인 자아가 발달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자아는 치료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를 관찰하는 분석가를 모델로 삼는다. 그러한 치료방식은 환자가 치료의 종결 시에 “나는 나 자신을 훨씬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이 행동 합니다”라는 자주 반복되는 불평을 토로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이때 주체의 변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지식’이 획득된다) 분석수행자가 다른 사람, 즉 자신의 분석가처럼(분석가와 동일시하게)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그녀를 더욱 소외시킨다. 분석가는 자기 자신만의 이상과 가치 그리고 비판을 통해,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특정 시각으로 환자를 관찰한다. 전이는 사라지기는커녕 단순히 분석수행자 자신과 같은 타자(분신alter ego, 또는 닮은꼴semblable)를 향하게 되는데, 단 여기서 타자란 분석을 시작하기 전의 분석수행자보다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수행자를 관찰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적 축에 위치한 전이와는 반대로 상상계의 축에 위치한 전이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전자는 타자Other와 관련된 전이로서 분석수행자는 타자가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 지식은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상계적인 전이의 중심에는 분석수행자는 특정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분석가가 있다. 환자와 마찬가지로 분석가도 자기 자신의 가치, 믿음, 감정 그리고 후회들을 근거로 분석수행자에 대해 찬성하거나 비판한다. 그러므로 상상계적인 전이와 관련된 분석가는 마치 자신의 개성을 가진 한 사람의 개인과 같은 존재로서 안정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약점과 버릇을 가졌으며, 통찰력을 가졌거나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 상징계적인 전이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분석가가 듣는 것-즉 분석수행자의 담론을 통해 분석가가 듣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한 상징계적인 위치에서 분석가는 자신의 개성(가치, 믿음, 감정, 후회, 약점, 버릇, 통찰, 맹목)이 아니라 타자Other를 근거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다(Fink. B 2004/2007: 26-27).

핑크의 언급 중에는 현재 한국에서 정신의학 임상, 프로이드정신분석 임상, 그리고 각종 정신치료와 심리상담치료들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임상가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 두 가지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정신역동’과 ‘보조자아(alter ego)’이다. 필자 역시 정신과 수련의 기간 중에 ‘정신역동 정신치료(psychodynamic psychotherapy)’를 주된 심리치료기법으로 배운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정신치료 기법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파생되어 비단 정신분석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상담치료에 꾸준히 응용/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치료자는 환자 자아의 불완전한 측

면을 보완하고 지지해주는 '보조자아'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마도 현재의 이러한 심리치료기법들을 모두 자아심리학이라고 통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아심리학자들은 대인관계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과 같은 다른 학파들과 많은 관심거리를 공유하고 있다(Stephen. A, Margaret B (1995/2000: 63)”고 볼 때 핑크의 비판은 광의의 범주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핑크의 말을 요약하면, ‘자기-관찰’을 하게 만드는 ‘관찰적 자아’는 분석가를 모델로 삼게 되며 이러한 분석가에게로의 동일시는 분석가 개인의 개성이 포함된 ‘상상계의 축에 위치한 전이’를 발생시키므로 분석수행자는 진정한 무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주요 논점은 상상계적 전이와 상징계적 전이의 차별성이다. 핑크의 주장은 상상계적인 전이는 자아를 매개로 한 것으로 분석가의 개성이 개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분석가가 ‘분석수행자의 담론을 통해 타자를 근거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징계적 전이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이 오직 상징계를 통해서만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상상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상상계와 상징계에 대한 이러한 극도의 차별성이 정신분석 임상에서 과연 그토록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라캉은 1972년의 <세미나 20>에서 세 가지 계의 고리로 구성된 보로매우스의 매듭이라는 새로운 위상학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입의 의미는 “이때부터 위상학은 라캉의 관심에서 언어학을 압도하게 된다”(Romulo. L 2006: 17)는 것이다. 보로매우스의 매듭은 원리 상 하나의 고리가 서로 묶여있지 않은 두개의 고리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모든 매듭은 보로매우스 기능의 특징들을 지탱한다-우리가 고리 중 하나를 자르면 나머지 두개의 고리들은 자유롭게 해방된다. 이 기능은 세 개의 고리 중 하나에 특별히 할당될 수는 없다; 그보다 그 기능은 매듭의 고유한 속성인 것이다. 이러한 고유의 속성 덕분에 보로매우스의 매듭은 라캉에게 RSI의 위상학을 제안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Romulo. L 2006: 21). 위상학을 중심으로 한 라캉의 후기 이론적 작업은 필연적으로 그 이전까지 수행되어온 자신의 이론적 궤적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견될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위상들의 차별성 여부이다. 후기 라캉은 언어 중심의 상징계를 차별적으로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 계를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RSI의 위상학인 것이다. 이후 라캉은 이

‘RSI의 균형적 유지’라는 테마를 통해 임상적 증후를 재 고찰하였다.

나중에, 1972년 10월에 있었던 라캉의 강연에서, 그는 보로매우스 이론을 확장하였고, 진보적으로 그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라캉은 주체의 정신기능이 세 개의 매듭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는 우리에게 고리들이 느슨해져서 다른 고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예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고리가 느슨해진 결과는 정신병의 특징인 정신적 붕괴(psychic collapse)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은 보충재(supplement)-고리들을 서로 유지시켜 주는 4번째 고리 또는 인위적인 지지-로 기능하는 증상이 제거될 때 일어난다. 네 번째 고리 또는 생통(sinthome)은 고리들을 서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증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거식증에 걸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약물중독, 강박적 도박꾼, 또는 일중독자들이 될 수 있다(Romulo. L 2006: 21).

이상을 살펴볼 때 라캉은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론적 형식화를 변경해가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드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구조모델에서 초자아, 자아 이드의 지형학으로 나아갔듯이 라캉도 언어로 대표되는 상징계에 대한 차별적 강조에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균형을 강조하는 동등성의 위상학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 임상에 있어서도 더 이상 언어적 상징체계의 차별적 지위를 강조하며 상징계를 특권화 시키는 것이 후기 라캉이 전개한 균형적 위상학의 관점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핑크가 상상계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한 자아심리학의 경우는 어떠한지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자아심리학의 창시자 격인 안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두 번째 위상학인 초자아, 자아, 이드의 구조모델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만일 정신적 갈등이 무의식적 충동과 의식적 방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심리적 대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세 개의 대리자가 각각의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환자의 정신의 무의식적인 측면들을 밝히는 임상적 과정 또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형학적 모델에서 치료의 열쇠는 원본능(id)의 충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석을 통해 원본능 충동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

내는 것이 갈등하는 자아와 초자아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Stephen. A, Margaret. B 1995/2000: 64) 그녀가 찾아낸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정신구조에 속한 무의식적인 내용이든, 분석가는 그것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는 이 세 구조 속의 무의식적인 요소들에 균등하고 객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의식을 통찰하기 위해 분석가는 원본능과 자아와 초자아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Freud. A 1936: 28)(Stephen. A, Margaret. B 1995/2000: 67) 안나 프로이드는 자아, 초자아, 이드에 모두 무의식이 균등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녀는 나아가 프로이드 지형학의 각 위상들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균형적 지형학'이라는 관점이 안나 프로이드와 후기 라캉의 유사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 자아심리학이 자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분석에서 상상계를 과두화시켰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초기의 자아심리학이 위상학적 측면에서는 후기 라캉의 사상과 유사한 관점을 취하고 있었음을 주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상계를 특권화한 자아심리학의 관점이 오류라고 해서 정반대로 상상계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동적으로 무조건적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핑크가 상상계에 속한 것으로, 그래서 분석에 있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한바 있는 분석가에 내재한 개성의 목록은 놀랍게도 '가치, 믿음, 감정, 후회, 약점, 버릇, 통찰, 맹목'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개성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 채 기능하는 이상적 인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불가의 수도승은 길고 힘든 수행을 통해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하나하나 모두 벗어던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종교적 덕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 현실적으로 도달한 사람은 아마도 지극히 적은 숫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인간인 분석가에게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제거한 이상적인 상태를 당위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매우 오랜 노력을 통해 힘들게 도달할 수 있는 전인미답의 어려운 경지가 될 것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의 주요한 부분을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분석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인된 분석가들이 모두 이런 경지에 도달해 있을 것인가? 필자의 의도는 핑크의 주장이 너무나 이상적이라서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지극히 이상적인 덕목을 모든 평범한 현실인인 우리들에게 강조하면 할수

록 그러한 덕목은 더욱 더 계몽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가 통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를 닦으라고 강변하지 않는 법이다. 라캉 정신분석이든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든 수많은 분석가들이 모인 국제적 커뮤니티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파벌조성과 이합집산 그리고 상호비난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그들이 모두 자신에 내재한 ‘가치, 믿음, 감정, 후회, 약점, 버릇, 통찰, 맹목’을 어느 정도라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왔다면 분석가와 분석수행자의 관계 보다 더욱 상위차원에 있을 것이라 간주되는 분석가와 분석가 사이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너무나도 ‘상상계적인’ 상황이 그토록 끈질기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논의를 중간 정리해 보자. 분석가의 개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면, 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동일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의 과정을 통해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중의 어느 하나 혹은 둘을 제거해야 된다고, 또는 어느 하나의 계에서 다른 계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RSI 위상학의 세 가지 차원(dimension)이 분석과정에서 항상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후기라캉의 균형적 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자아심리학이 상상계를 과두화 시켜온 것이 위상학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라캉정신분석에서 상징계를 특권화 시켜온 것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이 유사한 것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론과 임상에서 둘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라캉의 자아심리학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다만 (지적을 표현을 빌리자면) 둘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필자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위상학의 시차’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한국의 라캉정신분석에서 이론과 실천의 가능한 형태

이제 들뢰즈로 돌아가 보자. 서두에 논의한 바대로 라캉정신분석을 이루는 두 축인 이론과 임상을 직접적인 상호 인과론적 발전관계라고 간주하게 되면, 끊임없이 사상의 자기완결성을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총체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

며, 그 결과 정통(라캉정신분석)과 이단(자아심리학)의 끊임없는 배척과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상상계적 한계’에 갇혀버릴 소지가 있다. 이러한 총체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들뢰즈의 주장대로 정신분석에서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를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 장(field)에서의 이론과 실천이 항상 전면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즉 이론에서의 발전이 실천에서의 발전을 보장하며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실천에서의 발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론과 실천은 각지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영향도 부분/파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캉이 완성한 이론/실천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라캉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라캉학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나라별로 이론/실천적으로 각기 다른 특색과 차이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를 위시로 하여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등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라캉학파들의 색깔이 저마다 다를 것이고 각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색채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기억해 보면, 멜버른에서는 두 개의 라캉 그룹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필자가 단기 정신분석을 받았던 라캉 분석가 러셀 그리그(Russell Grigg) 교수가 이끄는 Lacan Circle of Melbourne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르헨티나 출신 레오나르도 로드리게스(Leonardo Rodroquez) 교수가 주도하는 Australian Centre for Psychoanalysis가 있었다. 두 그룹은 모두 라캉정신분석의 이론과 임상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상당히 다른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그 교수는 자끄 알랭 밀레와 교류하며 다소 정통적인 방식으로 소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룹성원들은 대개 학자풍이었고 차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에 로드리게스 교수는 콜레트 솔레와 교류하며 마치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룹성원들은 숫자는 많았으며 보다 대중적인 성격이었고 강의 형식의 세미나가 많았고 커리큘럼과정을 이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분위기였다. 호주에서 필자가 느꼈던 것은 라캉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천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의 라캉그룹 내에는 정말로 다양한 배경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온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공부해온 사람, 개인분석을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임상을 수행하

고 있는 사람, 이론적 연구만 하는 사람, Lacanian, 비Lacanian 등등. 전공도 매우 다양각색이다. 철학, 문학, 미학, 의학, 사회과학, 예술학 등등. 이들은 모두 라캉정신분석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이론과 실천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을 단일한 하나의 이론과 실천으로 통일시키고 묶으려 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시도는 총체화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들의 이론과 실천은 들뢰즈의 언급처럼 상호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분석 이론은 ‘항상 국지적이며 제한된 분야’인 임상과 관계 맺으면서 ‘이론 자신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다른 영역’인 다양한 학문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때 그 적용을 한 가지 유형의 정신분석적 담론으로만 진행하려 한다면, 마치 앵무새와도 같이 천편일률적인 담론들만을 복제 생산하게 되는 유사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각 학문들의 다양성은 정신분석의 담론 아래 획석화 될 것이고, 남는 것은 박제화 되어 이미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정신분석뿐일 것이다. 아마도 라캉정신분석이 교조화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터인데, 이 경우 다양한 이론들에 라캉의 텍스트로 주석달기에 몰두하게 되며, 그 결과 모든 학문들은 정신분석이론의 잠재적인 하위범주로 취급받게 되고, 오로지 라캉정신분석에 대한 믿음(belief)을 전파하는 활동만이 존재하는 상상계적 한계상황에 갇히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이론과 실천을 하나의 폐쇄된 장 안에서만 전면적으로 결합시키려 하거나, 단 하나의 이론유형으로 여러 이론들에 일방적으로 직접 적용하려 한다면, 총체화와 유사성을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함정들을 피하려면 들뢰즈의 언급대로 “실천은 하나의 이론적 지점에서부터 다른 지점으로의 연계들의 총화이고, 이론은 하나의 실천에서 다른 실천으로의 연계들의 총화”라는 것을 숙지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이고, 하나의 실천이 다른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실천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라는 뜻이다. 즉 이는 이론적 작업으로 하나의 이론과 다른 이론을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실천적 작업으로 하나의 실천과 다른 실천을 연결시킬 수 는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논문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의 이론적 접점에 대한 고찰’(김서영 2008)에서는 상징계가 실재계를 드러내는 방식을 중심으로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의 이론적 접점을 탐구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예시한 바대로 하나의 이론에서 다른 이론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저자는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은 그 이론적 접점이 전무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이론의 구축전략 및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학파의 이론을 분리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 그들의 전략 너머에 있는 동일한 시선을 감지해낼 때 더욱 실천적인 치유의 방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김서영 2008 : 272)”라고 결론을 맺는다. 여기서 저자의 지향점인 ‘실천적인 치유의 방향성’은 유감스럽게도 두 이론의 동일한 시선을 ‘이론적 작업’으로 추출해 내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두 이론을 연계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실천이 어떠한 것인지를 필자가 제시할 능력은 없지만, 그 실천의 영역은 분명 정신분석 임상과 분석심리학 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본고의 주제인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라캉이론연구자가 (그것이 찬성이든 비판이든 간에) 정신분석 이론을 자아심리학 이론에 적용하거나 연결시키려 할 경우, 그것은 이론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실천인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이론가는 이러한 실천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상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자아심리학이론 -> 라캉정신분석이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자아심리학 임상가가 자신의 실천에 라캉정신분석 임상을 도입하려는 경우,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심리학 임상가는 이를 위해 어떤 이론적 작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며, 그 역의 경우(라캉정신분석임상 -> 자아심리학임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들뢰즈가 주장한 이론과 실천의 전략에 따르자면 라캉정신분석이론 <-> 자아심리학이론의 연계에서 임상적 실천의 변형 혹은 새로운 실천이 대두하게 되며, 자아심리학임상 <-> 라캉정신분석임상의 연계에서 이론의 변형 혹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필자는 정신의학 수련의 과정과 전임의 과정을 통해 프로이트정신분석이론, 자아심리학이론,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이론, 인지행동이론, 정신역동 정신치료, 분석적 정신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그룹역동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등을 공부하면서 임상수련을 받았고, 이후 직업 상 계속적으로 임상적 실천의 장에서 지내고 있다. 필자가 라캉정신분석을 접한 뒤, 임상에 이를 적용해보려 했을 때, 상당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오랜 기간동안 자아심리학에서의 이론과 실천에 적응이 된 상태였으므로, 라캉정신분석과 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환자의 자아를 지지해주는 정신치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라캉은 그것에 전혀 치료적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진단에 있어서도 필자는 미국정신의학회 진단분류체계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라캉은 단 세가지 진단만으로 이루어진 구조진단체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필자가 내담자와 왔을 때, 두 가지 진단체계가 함께 작동하는 것에서 또한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서로 다른 임상체계가 만났을 때,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도 그러한 혼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임상적 실천에서 새로운 임상을 받아들이게 될 때, 마치 종교를 개종하듯이 이전의 실천에서 체화된 모든 부분이 리셋되고 순수하게 새로운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 상황에서는 들뢰즈의 전략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하나의 실천에서 다른 실천으로의 연계는 두 가지 실천을 혼용하거나, 또 다른 실천을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론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이론적 작업’인 셈이다. 그러한 이론적 작업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은 아마도 필자가 그동안 알고 경험해왔던 라캉정신분석, 자아심리학과는 다른, 변형되고 새로워진 어떤 이론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고민이 비단 필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라캉정신분석 이론가로서 임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이론작업을 하다가 라캉정신분석을 접하게 된 사람도, 필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인문치료와 예술치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이론/실천적 장의 등장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세 가지 부문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데, 인문(예술)학, 라캉정신분석, 자아심리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문학과 예술학이 현재 스스로의 고유한 독자적인 임상(치료) 모델을 전혀 지니지 못한 상황에 기인한다. 그 때문에 인문(예술)학은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에서 치료 모델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문치료에서는 현재 문학치료, 독서치료, 시

치료 등이, 예술치료에서는 영화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중 명시적으로 라캉정신분석과의 연계점을 찾아보려했던 시도는 ‘영화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백상빈 2005)와 ‘시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최소영 2009)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인문(예술)치료에서 가장 큰 논쟁점은 아마도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이 이론/실천에서 인문(예술)학과 공존할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 부분이 융합된 이론/실천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신분석적 인문(예술)치료’와 ‘인문(예술)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라고 명명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이미 논문 ‘영화(시)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에서 이미 차용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은 현재 동일한 이론/실천의 장에서 공존하기가 불가능하다. 과거 라캉이 선언적으로 둘의 공존불가능성을 천명한바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둘을 연결시키려는 이론적 작업과 임상적 노력은 이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부분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방향은 인문(예술)학과 라캉정신분석 그리고 인문(예술)학과 자아심리학이 이론/임상(실천)에서 공존가능한지를 타진하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먼저 인문(예술)학과 라캉정신분석에 대해 살펴보자. 인문(예술)학은 라캉정신분석에서 어떤 임상(치료)모델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한국에 국제라캉그룹에서 ‘통과’를 받은 공인된 분석가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오로지 그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상황은 분석가의 부재로 인해 아직 라캉정신분석 임상이 본격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예술)학이 라캉정신분석에서 차용할 임상(치료)모델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예술)학과 라캉정신분석이 그 실천영역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인문체험(문학체험, 시체험), 예술체험(영화체험, 미술체험, 음악체험)과 라캉정신분석의 연계를 타진해 보는 것 뿐이다. 그러한 연계는 이론과 실천 두 부문에서 각각 타진될 수 있는데, 이론적 작업은 영화(시)체험 자체가 본래적으로 지닌 정신분석적 능력은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노력이 될 것이고, 실천적 작업은 정신분석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영화(시)를 창작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논문제목이기도 한 ‘영화**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백상빈 2005)라는 개념은 현재에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영화**체험**의 정신**분석**적 요소’로 정정되어야 한다. 이는 라캉정신분석 임상이 현실적으로 존립하

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신분석과 연계된 어떠한 실천에도 결코 ‘(임상)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없으며, ‘치료’라는 기표 역시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문(예술)학과 자아심리학의 경우는 어떠할까? 인문(예술)학은 자아심리학에서 얼마든지 임상(치료)모델을 차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미 오래동안 자아심리학의 임상적 실천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때문이다. ‘시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최소영 2009)에서는 이러한 자아심리학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시치료의 목적은 시적주체의 내적갈등과 욕망의 문제 및 삶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마음의 치유와 성장을 통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가꾸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자각과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둘째, **통합된 자아형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셋째, 상생(win-win)하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기다움을 찾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 **시치료사의 개입**과 시를 통한 시적 공간(poetic space)에서의 내적 욕망을 충분히 풀어내고 다룰 수 있을 때, 자신에게 너그러운 관대함(tolerance)과 자비로운 마음(compassion)으로 공감하고, 진실되며 솔직성(genuineness)이 일치(congruence)되며 재현된 것들에 대해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acceptance)하고 존중(regard)할 수 있을 때,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 치료사와 분석주체와의 관계, 분석주체와 시적 공간과의 관계, 치료사와 시적 공간과의 관계, 시적공간에서의 글/詩의 관계가 **라포가 형성되는 치료적인 관계**성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의 관계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분석주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주체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최소영 2009: 70).

이 논문에서 분석가는 부재하며 그 자리를 ‘시치료사’가 대체하고 있으며, 시치료사는 내담자에게 ‘개입’하고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며 내담자가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 논문은 ‘시 체험’과 라캉정신분석을 연계해 보려는 참신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임상에서 상호 공존할 수 없는) 자아심리학과 라캉정신분석을 혼란스럽게 섞어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 한국에서 부재한 라캉정신분석 임상을 ‘치료’라는 (정신분석과는 모순적인) 기표를 통해 가상의 (임상)실천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만약 저자의 의도가 시와 라캉정신분석을 연계하는데 있었다면 논문의 제목은 '시 **체험**의 **정신분석적** 요소'로 정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자아심리학적 임상(치료)의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만약 저자의 의도가 시에 심리치료적 임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면 논문의 제목은 '시 **치료**의 **(자아)심리학적** 요소'로 정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라캉정신분석의 이론적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인문(예술)학과 라캉정신분석/자아심리학의 이론/실천을 연계하려는 노력들은 현재의 한국적 현실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1. 라캉정신분석으로의 연계 : 문학/예술**체험 자체**가 지닌 정신분석적 능력은 무엇인가? (문학/예술**체험**의 정신분석적 요소)
2. 자아심리학으로의 연계 : 문학/예술을 **매개**로 사용하는 자아심리학적 심리상담치료 (문학/예술**치료**의 자아심리학적 접근)

V. 맺는말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은 이론과 실천의 어떤 지점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것일까? 둘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지젝에게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순한 차이와 순수한 '극소차이'를 구분하며 '시차적 간극'인 극소차이에서 욕망은 충동으로 전환되며, 충동의 진정한 구조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의 실패가 반복되는, 대상 주위를 끝없이 시계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 혹은 진동(oscillation)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대상들 사이의 단순한 차이와 반대로 순수한 차이는 그 자체가 대상이다. 그러므로 시차적 간극의 또 다른 이름은 실증적이며 실체적인 속성들에 국한되지 않는 '순수한' 차이, 극소차이이다. [...] '극소차이'의 핵심을 온전히

이해하려 할 때 욕망에서 충동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중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극소차이는 일상적인 대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이해 불가능한 X가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리비도적 공간을 만족 시키고 그러므로 본능을 충동으로 변환시키는 내부적 비틀림이다. 결과적으로 충동이라는 개념은 ‘사물에 의해 데이거나 또는 그것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양자택일이 거짓이 되게 한다: 충동에서 “물자체”는 공백(또는 공백이라기보다는 구멍) 주위의 순환이다. [...] 충동과 욕망의 차이는 욕망의 경우 이러한 절단면, 부분 대상에의 고착이 “초월화”되어 사물의 공백을 위한 대체물로 전환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충동의 만족”에 대한 라캉의 논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충동은 그 대상이 사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충동이 소위 실패를 승리로 뒤바꾸기 때문이다. 충동 속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의 실패 자체와 이러한 실패의 반복, 즉 대상 주위를 끝없이 맴도는 행위는 그 자체의 만족을 생성한다. 라캉이 말하듯이 충동의 진정한 목적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 주위를 선회하는 것이다. 처음 성관계를 가지는 바보에 대한 잘 알려진 비속한 농담에서 여자는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내 다리 사이의 구멍이 보이지요? 그것을 거기 넣으세요. 이제 그것을 깊이 밀어 넣으세요. 이제 빼세요. 넣으세요. 빼세요. 넣으세요. 빼세요.” “잠깐 기다려 봐요.” 바보가 말을 막는다. “마음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넣어요 아님 빼요?” 바보가 간과하는 것은 바로 미결정성, 반복되는 진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충동의 구조이다(Zizek. S 2006/2009: 41, 131-133).

필자는 앞서 만약 라캉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징계와 상상계 각각의 특권화로 인한 ‘위상학의 시차’일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이론 사이에서 어떤 연결점을 찾으려 끝없이 맴돌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연계점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이론적적 업과 임상적 실천 사이를 진자운동을 하고 있다면, 두 이론 사이의 간극은 ‘극소차이’일지도 모르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 보다는 목표달성(연계점)의 불가능성을 끝없이 확인하는 그러한 반복운동 자체에서 충동의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하에서 라캉의 위상학이 내포한 새로운 특징의 가능성이 도출된다. 그것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세 계(order)들 사이에는 시차적 간극이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에 피동적으로 놓여있는 주

체는 이러한 ‘극소차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세 계들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끝없는 진동에 의해 충동의 만족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필자의 논문작업 역시 그것의 소산일 것이다. (2009년 06월 20일 접수 2009년 07월 15일 채택)

참고문헌

- 김서영 (2008). 「Towards a Visible Dialogue between Psychoanalysis and Analytic Psychology」.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0권 2호.
- 박시성 (2008). 「영화의 임상응용에 대한 비판」.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0권 2호.
- 백상빈 (2005). 「영화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7권 2호.
- 최소영 (2009). 「시치료의 정신분석적 요소」. 『2009년 한국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정기학술대회 [전기]』.
- Fink, B. (2004). *Lacan to the Letter: Reading Ecrits Closely*.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김서영 역 (2007). 『에크리 읽기 ; 문자 그대로의 라캉』. 도서출판b.
- Foucault, M. Deleuze, G. (1994). *Dits et Ecrits IV*. Gallimard. 이승철 역 (2004). 『푸코의 맑스』. 갈무리.
- Freud, A.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 of defense*. Hogarth. London.
- Lacan, J. (1973). *Le Seminaire liv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맹정현, 이수련 역 (2008). 『자크라캉 세미나 11 :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 Romulo, L. (2006). *SUBJECTIVE EXPERIENCE and the logic of THE OTHER*. Other Press. New York.
- Stephen, A. Margaret, B. (1995). *Freud and Beyond : A History of Mordern Psychoanalytic Thought*. Persues Books Group. 이재훈, 이해리 역 (2000). 『프로이트 이후 : 현대 정신분석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Zizek, S. (2006). *The Parallax View*. 김서영 역 (2009). 『시차적 관점』. 마티.

[Abstract]

Psychoanalysis and Ego Psychological Therapy

Sang-bin Baek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o-chan Kim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is article was proposed to resolve the confusion of cinema therapy and poet therapy related to Lacanian psychoanalysis and ego psychology. For this proposal, I discussed about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in Lacanian psycho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Lacanian psychoanalysis and ego psychology through Deleuze's concept about theory and practice.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insist that the dire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cinema therapy and poet therapy sh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rela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what is the psychoanalytic power in cinema and poet experience, psychoanalytic elements of cinema and poet experience. The other is relation to ego psychology, ego psychological therapy using cinema and poet as a medium, ego psychological approach of cinema and poet therapy.

▶ **Key Words** : Lacan, Deleuze, psychoanalysis, ego psychology, poet therapy